



담양군, 농업기술 전수로 미얀마 농업 선진화 기여

딸기 신품종 '죽향'·'메리퀸' 재배기술 등 농업분야 교류 추진 논의



동남아시아 대표 농업국인 미얀마의 대표단이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담양군을 찾았다. 이번 방문단은 NANG HSENG HOM(남사인원) 미얀마 예진농업대학 교장 TIN HTUT(틴투트) 미얀마 농업부차관 등 미얀마의 농업을 대표하는 11인으로 구성, 지난 6일부터 4박 5일의 일정으로 담양의

농업기술을 벤치마킹했다.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영식을 통해 대표단과 최형식 군수를 비롯한 담양군 관계자는 미얀마 농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담양의 농업발전상 안마 농업발전을 위한 농산물 시장 동향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대표단은 이후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온실, 원예작물 재배시설 및

가공시설 등을 견학했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얀마의 농업소득 증진을 위해 담양의 신품종 딸기 '죽향', '메리퀸'을 현지에서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아울러, 이러한 교류를 농업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환경분야, 상하수도 시설 및 정책, 관광분야 등 양 기관의 교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이어 우리 담양의 뛰어난 농업기술이 미얀마 농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얀마의 농업발전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미얀마연방공화국은 인도차이나반도 서북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677천km로 우리나라의 약 3.5배에 달한다. 인구는 약 6,000만 명으로 인구의 60퍼센트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흥군 유치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로 일손부족 해소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단 운영 278ha에 520톤 살포



장흥군 유치면에서는 3월초부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면은 토양의 지력증진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다지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실시하고 있다.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뿌리는 규산 석회 등의 비료다.

대상 면적은 유치면 농경지 278ha로 모두 520톤을 공동살포할 계획이다. 김장용 유치면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토양개량제 살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공동살포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했다"며, "지력증진을 장흥군 친환경 1번지 유치면의 면모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영암군, 산간벽지·축사 등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영암군은 유선인터넷 구축이 힘든 단지역(산간 소규모 마을, 귀농귀촌지역, 축사, 농가)에서도 와이파이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망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국·도비를 포함해 8천만원의 예산으로 일부 축사와 오리농장, 귀농귀촌가구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군 관계자는 "유선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나, 이용자가 적어 통신사가 케이블 설치를 꺼리는 지역에서도 최첨단 서비스를 이용할 있도록 하여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이루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영암=조대호 기자

진도군,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중간보고회



진도군이 최근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업·농촌·식품산업 중간보고회는 이동진 진도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정책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농촌의 발전 방안과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농촌발전계획 수립을 맡은 지방행정발전 연구원 현황

호 대표가 진도군의 농업농촌 현황 및 특성을 분석, 5개년(2019~2023년) 농업·농촌 비전, 목표, 부문별 추진계획 등 농촌 발전의 기본방향을 보고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진도군의 지역 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을 위한 우수 품종육성·발전 방안과 진도군의 우수 농특산품을 제품화한 홍보·마케팅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였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오는 12월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진도군 미래 농업발전이 무게를 두고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이 담긴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곡성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곡성군은 개화철을 맞이하여 이달 15일까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위험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중점관리 구역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요 도로변과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 차량과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인접 도로 및 가로변이 대상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 간판, 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의 추락과 파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 광고물은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광고물 위주로 정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 11일 개화철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캠페인을 개최하기도 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화순군, 향청리·만연리·훈리 '도시재생 활성화 공청회' 개최

오는 14일 의견 수렴

화순군이 오는 14일 오후 2시 화순읍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8월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화순읍 향청리·만연리·훈리 일원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청회는 국토교통부 활성화 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군은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 주민협의체 정기회의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했

다. 군은 '청춘가로와 함께 되살아나는 힐링 도시 화순'을 주제(사업명)로 향청리 등 일원 13만7300㎡에 180억 원(국비 98억·지방비 82억)을 들여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테마거리 조성과 빈 점포를 활용해 골목상권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주민은 물론 화순군의회 의견을 종합해 3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여수시, 화물자동차 등 밤샘주차 단속

여수시는 주요도로와 주택이 이면도로에 장시간 주차하는 이른바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습 밤샘주차 구간인 죽림리 신승공원, 선원동 선사유적공원, 여천초등학교와 농업기술센터, 신기동 망마체육공원, 문수동 부영9차아파트, 국동 어항단지 주변을 새벽에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밤샘주차 적발 차량 중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 처분을 진행하며, 관외 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한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전세버

스 등의 밤샘주차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소음공해, 차량통행 방해 등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면서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밤샘주차를 연중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화물자동차 88대, 전세버스 23대, 타 지자체 이첩 20대 등 차량 131대를 적발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